

출장 세차 프랜차이즈 카앤피플 갑질적발

공정위, 시정 명령·과징금 300만원 부과

1.7만원짜리 카트리지를 2.6만원에 팔면서

“다른 곳에서 구매 시 계약 끊는다” 강요

출장 세차 프랜차이즈 ‘카앤피플’이 가맹점에 스펀지·타월 구매를 강제하고, 정보 공개서를 주지 않는 등 법을 어기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카앤피플의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항후 재발 방지·교육 실시)과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앤피플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스펀지·타월 등 52개 품목을 반드시 가맹 본부에서 구매하라”고 강제한 바 있다. 카앤피플은 해당 품목의 구매가에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가맹점에 판매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1만7200원에 팔리는 청소기 원형 카트리지를 2만6000원에 파는 식이다.

가맹사업법은 ‘품질 및 서비스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구매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카앤피플이 구매를 강요한 52개 품목은 표준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카앤피플은 52개 품목을



가맹 본부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면서 “그 결과 가맹점주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했다.

이 밖에 2016년 12월~2019년 2월에는 34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정보 공개서·가맹 계약서·인근 가맹점 10곳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400만~1100만원의 가맹금을 지정 금융기

관 예치 없이 자사의 법인 계좌로 직접 받았으며, 계약서에 가맹점주의 영업 지역도 설정하지 않았다. 모두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더하는 가맹 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서선욱기자

광주 동부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홍보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주택 화재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단독·연립·다가구 등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부소방서에서는 홍보용 현수막 등(포스터)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랩핑 등 이색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주택용 소방시설 기간제근로자를 통해 동구 관내 취약주거지역 2,400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보급한다.

최윤희기자

완도해경, 해상 밀입국 대비·대응 강화 훈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최근 완도군 망남리 앞 해상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을 통한 해상 밀입국 대비·대응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후 진행했으며, 완도해경과 육군 장보고대대, 완도군청 등 3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복합적 상황부여로 현실감 있는 현장 기동훈련으로 전개됐다.

주요 훈련사항은 상황발생 접수와 동시에 완도해경, 육군, 완도군청 대응세력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 △용의선박 정보분석 △용의선박 특정과 감시(R/S, TOD) △도주선박 추격과 차단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추적·중계 △해상 검거작전·육상 도주로 차단(검문소 설치) 순으로 진행했다.

해경관계자는 육군 8539부대와 통합방위 협력체계를 구축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안보·안전·치안·환경 등 다양한 위협요소에 대한 총력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코로나 시국에 공용간장 ‘오뎅 폭’...말리자 행패까지

떡볶이 집에서 난동 부려...벌금 1000만원

“이 간장 얼만데?” 신용카드 집어던지기도



공용으로 쓰는 간장에 오뎅을 찍어 먹고는 말리는 가게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지난달 28일 선고했다.

박씨는 코로나19 시국이 한창인 지난해 11월28일 저녁 7시18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떡볶이 집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쓰는 공용 간장통에 직접 오뎅을 찍어먹다가 가게 주인이 제지하자 손님이 들어오

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게 주인에게 “그래서 어쩌라고? 이 간장이 얼마인데?”라며 소리를 지르고 “여기 있는 음식 싹 다 얼 마!”라며 주인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집어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포장된 음식이 담긴 검정 비닐봉지를 가게 앞 도로에 집어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동종범죄로 인한 징형유예 중 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범죄로도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금어기에 감성돔 낚시하던 어민 첫 적발

30~40cm 크기 5마리 잡아...완도해경 회진파출소 어민 단속

감성돔 금어기가 올해 첫 시행 중인 가운데 전남 장흥 해상에서 낚시로 감성돔을 잡던 어민이 해경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완도해경 회진파출소는 8일 오전 9시께 장흥군 회진면 연안 해상에서 불

법으로 감성돔 낚시를 한 혐의로 연안 복합어선 선장 A씨를 적발했다.

해경이 검문한 결과 A씨는 30~40cm 크기의 감성돔 5마리를 낚시로 포획한 혐의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감성돔 등 수산 동식물 14종의 포획 금지 기준을 신설했다. 감성돔 포획 금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이다.

이 기간에 감성돔을 포획하다 적발되면 어민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낚시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수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금어기와 금지제장 개정 내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광양소방, 전통시장 점포점검의 날 운영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전통시장 내 안전 환경 조성 및 상인회 중심 자율안전점검 체계를 확립하고자 매월 2주 차 수요일에 ‘점포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포점검의 날’은 전통시장 특성상 점포 간 밀접도가 높고 미로식 구조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이 어려워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어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제거하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인회 및 점포주를 중심으로 점포 내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확인 점검, 화재 취약 심야시간 야간순찰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인 및 관계자 스스로가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소방서에서도 주기적인 소방시설 점검 및 예방순찰 강화 등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화재 없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양=심종섭기자

무안소방,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불법행위 테마별 집중단속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봄철을 맞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해 테마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하고 있다.

이번 테마별 집중단속은 다중이용업소 등 7개 특성소방대상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5월은 판매시설 등 대상으로 진행 할 예정이며 화재 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연락 없이 불시 단속으로 진행된다.

단속 내용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훼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무안=이기성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